

광주시교육청, '빛고을혁신학교 신규 및 전입 교직원 특강'

학교급별 특성 반영...유·초·중등·특수로 나뉨

유튜브 방송 실시간 채팅 통해 쌍방향 방식 실시

광주시교육청이 4일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혁신학교 철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1 빛고을혁신학교 신규 및 전입 교직원 특강'을 개최했다.

빛고을혁신학교는 공공성·자발성·공동체성·지역성·창의성 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자발성 및 집단지성을 통해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공교육 모델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매년 학교 구성원이 바뀌는 가운데 새로운 구성원과의 혁신교육 철학 및 비전 공유가 혁신학교의 출발점이 된다.

이번 특강은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해 유·초·중·특수로 나뉘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에 개최됐다.

유·초등의 경우 혁신학교로 전입해 동료 교사들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특강 '혁신학교, 나의 이야기(봉주초 한우리 교사)'가 진행됐다.

이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혁신학교를 운영한 경험 등으로 구성된 특강 '조금은 덜 당황하며 좀 더 즐겁게 혁신학교와 만나기(광주 동산초 채란경 교장)'가 실시됐다.

중등·특수의 경우 전문적학습공동체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 사례 등을 담은 특강 '혁신학교를 만나다(월곡중 김혜주 교장)'가 진행됐다.

실시간 채팅을 통해 전입 교직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쌍방향 방식으로 실시됐고 '혁신학교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혁신학교는 무엇을 하는지?' 등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시교육청 이승우 교육국장은 빛고을혁신학교 전입 교직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네며, "교육의 변화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공감과 배움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실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혁신학교는 치열한 경쟁교육·특권교육을 지양하고, 공공성·자발성을 통한 협력교육·상생교육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고 학교의 깊이를 더해 자신의 빛깔을 발하는 혁신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혁신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조인호기자



목포교육청 교사들, 소통의 달인 되다

부모·학생 상담 위한 의사소통 역량 강화 비대면 연수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갑수)은 학부모·학생 상담을 위한 의사소통 역량 강화 비대면 연수를 마무리하였다.

방학을 이용해서 지난 학기동안 학생·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소통하지 못해 불편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평화로운 학급운영을 위한 대화법을 배우기 위해 실시되었다.

한국비폭력센터 정희영 강사를 초대하여 학부모나 학생들의 부정적인 언어표현에 자극되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말 속의 감추어진 진심을 집중하여 대화하는 법, 즉 '알아차림' 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한 연수생은 "학생들과 소통을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는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충고·조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연수를 통해 경청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수

생은 "이렇게 소중한 연수를 개설해준 교육청이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 연수를 통해 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치유와 배움이 함께한 연수였다며 다른 동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하였다.

목포교육지원청 김갑수 교육장은 "학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어 교사들은 학생 생활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학교지원센터 최은순 센터장은 학부모와 교사 간 서로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비폭력 대화법을 배우길 원하는 교사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직무연수를 개설할 예정이므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하였다. 목포=박정수기자

광양교육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협의회' 개최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 제공...학생들 건전한 성장 지원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정자)은 2일 오후 3시 30분 부터 대회의실에서 '2021학년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협의회'를 가졌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정규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로 관내 초등학교에 1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1학년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계획과 함께 2021학년도 배치학교 및 순회학교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는 15명이었으나 1명이 그만 두어 지난해와 다르게 수업시간이 많은 광양중진초와 광양마동초 스포츠강사들이 업무가 과중되거나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학교와 스포츠강사의 동의로 소규모학교(14교)까지 순회하기로 결정하였다.

협의회에 참석한 임인택선생님은 "근무지침 및 복무처리 기준 등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져 좋았으며 특히, 스포츠강사들의 처우개선 및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올 해의 순회학교 선정에 있어서 우리의 의견을 듣고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했다.

등부채본부김승호기자

지역과 함께 하는 '장흥Wee센터 겨울방학 프로그램' 성료

'건강한 나, 함께 자라는 우리' 실시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왕명석) Wee센터에서는 1월 18일~2월 3일까지 부산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5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겨울방학 프로그램 '건강한 나, 함께 자라는 우리'를 실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여가 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서

조절향상 프로그램 및 보드게임 등을 활용한 놀이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열체크 및 손 소독 실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며, 각 지역아동센터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감정을 주제로 한 퀴즈와 게임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감정 단어를 인식하고 표현해 봄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모둠별로 새로운 보드게임 등을 익

히며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활동을 마무리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원 물품(건강지킴이 키트)을 제공하고, 준비해 간 간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을 함께한 장흥지역아동센터 학생은 "게임과 퀴즈를 통해 여러 가지 감정을 알 수 있었고, 선생님들이 새로운 보드게임을 알려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고 함께 해 주셔서 엄청 좋았고 고맙다."라며 활동 소감을 밝혔다.

정흥=김도영기자

